

응용경제 제17권 제3호
2015년 11월, 한국응용경제학회

생애소득과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복지정책: 캐나다 사례 분석*

전영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NLSCY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시 경제상황이 장기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경기에 졸업한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상급교육기관 진학률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나 저소득층의 진학률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기 도래시 교육투자 지원책들은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RESP(Registered Educational Savings Plan) 이용자들이 정부보증대출 이용자와 장학금 수혜자보다 불황기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 격차는 고교졸업시 경제 상황보다는 교육투자, 또한 이로 인한 종사 직업군과 산업군의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에 교육자금 부족으로 교육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생애소득이 낮아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를 지원할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RESP와 같은 교육저축상품이 다른 지원책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JEL분류번호: H53, I26, J24, J31

핵심주제어: 경기침체, 소득 및 고용안정성, 복지정책, 인적자본투자

투고: 2015년 9월 10일; 수정: 2015년 10월 22일; 게재확정: 2015년 10월 25일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4542)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주소: (우)04763,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전화: (02) 2220-1025, 팩스: (02) 2296-9587, E-mail: yjchun@hanyang.ac.kr.

I. 서론

경제위기 혹은 경기침체는 근로자들의 소득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에 대학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세대들은 소득감소를 오랫동안 경험하여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다른 세대들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에서 시작하여 임금수준이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Khan(2010)은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를 이용하여 대학졸업자의 경우 미국의 전체와 주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 영향이 최소한 20년간 낮은 소득수준을 경험하는 상황으로 나타나다는 점을 보였다. Oreppoulos 외(2006)는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캐나다의 대학, 고용주, 근로자와 관련된 패널데이터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불경기에 대학을 졸업한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에 비하여 최소한 10년 이상의 소득감소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년간의 소득수준에 대한 비관적인 예상을 하게 되는 청년들은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까? 대학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간 의사결정의 차이는 존재하는가? 대학졸업자의 경우 제한된 수의 졸업자만 대학원에 진학하는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대학진학과 취업에 대한 보다 넓은 폭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불경기에 고교를 졸업한 불행한 세대들이 소득수준에 대한 비관적인 예상으로 인해 대학을 비롯한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될까 아니면 평생 직업을 얻기 위해 구직활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들의 생애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경기변동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거시경제학 분야의 기존 연구는 흥미로운 점은 시사하고 있다. Aghion and Saint-Paul (1993)은 만일 기술진보가 생산과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인적자본투자에 의해 유발된다면 경제성장은 경기변동 폭과 양(+)의 관계가 있지만, 만일 생산과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 직무 수행을 통해 기술이 습득된다면 성장은 경기 변동 폭과 음(-)의 관계가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전자의 경우 경제성장의 엔진은 교육투자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직무과정에서의 기술습득

(learning-by-doing, LBD)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많은 실증분석 연구를 유발하였으나,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rtin and Rogers (2000)와 Ramey and Ramey (1995)는 경기변동과 경제성장간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Heylen and Pozzi (2007)과 Schlady (2004)는 음의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술진보와 인적자본 투자 혹은 직무수행을 통한 기술습득간의 관계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일시적인 경기후퇴는 LBD의 감소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기침체는 전망이 좋은 직업경로(career track)와 새로운 기술습득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줄임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Gibbons and Waldman (2006)). 따라서 경기침체에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은 낮은 임금수준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하고 기술습득의 기회가 적어 낮은 소득수준을 오랜 기간 동안 감내하여야 한다. 또한 생애 첫 일자리로 비숙련 근로를 시작한 근로자들의 향후 구직의 강도가 낮아지고 또한 다른 기업들로부터 새로운 구직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Blau and Robins (1990), Bloemen (2005)). 이로 인해 이들은 긴 기간 동안 낮은 소득수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OJT(on-the-job-training)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정책 측면의 선택은 불경기에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진학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 형태로 추가적인 인적자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추가적인 인적자본 투자는 새로운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일자리 취득 이후에도 보다 높은 소득과 많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로의 이동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Oreopoulos et al. (2012)).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는 교육투자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제도인, 정부보증 대출 기회 제공, 장학금 지급, 그리고 캐나다의 RESP(Registered Educational Savings Plan)¹⁾와 같은 교육을 위한 저축상품에 대한 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1) RESP는 고교 졸업후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 이수 혹은 상급학교 진학시 교육비 지출에 대비한 캐나다의 저축상품이다. 연간 불입한도는 학생당 2,500 CAD(Canada dollar)이며,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졸업시 경제상황이 장기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된 복지제도의 역할 정립에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 3가지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i) 불경기에 고교를 졸업하는 불운한 세대들이 교육투자와 구직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 추가적인 인적 투자를 위해 상급학교 혹은 여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지 혹은 평생직장을 확보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계속할 것인가? (ii) 이 의사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추가적인 인적자본투자가 장기적으로 소득수준과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가? 교육투자가 취업을 통한 LBD에 비하여 생애소득 안정성 제고에 더 효과적인가? (iii) 불경기에 고교를 졸업하는 세대들의 생애소득과 고용안정성 제고를 통해 후생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비용 효과적 정책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캐나다의 패널데이터인 NLSC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불경기에 졸업한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보다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보다도 여타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 그리고 풀타임으로 진학하는 경우보다도 파트타임으로 진학하는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불황기 도래시 교육투자에 대한 지원책들을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RESP 이용자들이 정부보증대출 이용자와 장학금 수혜자보다 불황기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정부보증 대출과 장학금 수혜의 효과는 불경기보다는 호경기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RESP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경기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1997-8년 경제위기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 격차는 고교졸업시 경제 상황보다는 교육투자,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이 종사하는 직업군과 산업군의 차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불경기 도래시 충분

캐나다 정부는 불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계좌에 적립한다. 10% 수준의 금액은 소득공제 공제와 비교하여 높은 금액이 아니다. 캐나다의 (연방과 province 합산)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이 약 45-50%인 점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이 최고한계세율 구간에 속한 납세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불입액의 40-50%)보다 지원규모가 적은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는 소득공제 적용시보다 RESP를 통한 지원 금액이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이다.

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수준과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직업군과 산업군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들어 생애소득이 낮아지는 위험성을 시사한다.

실증분석의 전반적인 결과는 불경기에 고교를 졸업한 불행한 세대들의 생애소득과 고용의 안정성 나아가 후생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에서 RESP와 같은 교육저축상품이 다른 지원책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NLSCY자료의 특성과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의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III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실증분석 방법과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IV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II.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캐나다의 NLSC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를 이용하였다. NLSCY는 1994년(cycle 1)에 조사를 시작하여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cycle 8인 2008년-2009년도 조사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이 자료는 Longitudinal survey(LS), Early Childhood Development survey(ECD), Youth Survey (YS)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조사(cycle 1:1994/95) LS자료는 연령 0-11까지의 아동과 해당 아동의 양육자와 그 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들 아동들은 cycle 8(2008/2009 조사)에는 14-25세가 되었다. ECD 조사는 cycle 2부터 연령 0-1세 아동과 해당 아동의 양육자와 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cycle 8에는 연령 0-7세 아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YS자료는 cycle 5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조사 대상은 LS 조사에서 3개 cycle연속 조사에 응하지 않는 청년(Youth)들이다. 이들은 주로 연령 18-19세에 보호자 가구에서 독립하여 자신이 주된 응답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고교를 이미 졸업하고 고등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을 받거나 취업한 사람들이나 이들 중 일부는 아직 고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고교를 떠나 중등교육을 받지 않은 16세 이상 청년들로 구성된다. 이들이 YS 조사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주된 응답자는 이들의 MKP(most knowledgeable person), 주로 모(母)

였지만, YS 조사대상이 된 이후에는 청년 자신이 주된 응답자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이슈는 고교졸업시 경제상황과 복지제도가 고교졸업자의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를 위하여 YS와 LS 자료를 이용하였다. YS 자료와 더불어 LS 자료를 함께 사용한 이유는 YS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예를 들어 고교시절의 전반적인 성적 및 활동상황에 대한 부모의 평가, 이들이 속한 가구의 소득, 보호자의 학력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YS자료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 16-25세 (cycle 8 기준)의 청년이 조사되고 있는데, 조사내용 중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 관한 정보가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첫 번째 결정인 교육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LS자료와 ECD자료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LS와 ECD자료들의 성인은 아동들의 MKP와 이들의 배우자(Spouse)로 구성된다. 이들 자료는 성인들의 소득과 고용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두 자료의 단위를 아동인 것을 성인 단위로 변경하여 두 자료를 통합하였다(LSECD).

첫 번째 사안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cycle 6-8의 YS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 자료에 보고된 관찰자 수는 cycle 6(cycle 7, cycle 8)의 경우 2,226 (3,924, 5,065)이다. YS cycle 5는 Youth 자료가 생성된 첫 번째 cycle임에도 불구하고 관측치가 작아서 사용되지 않았다. 관측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cycle 6인 NLSCY 자료에 포함된 자녀의 연령은 10-21세인 반면 cycle 7에는 12-23세, cycle 8에는 14-25세로 연령층이 높아지고 따라서 LS 자료대상에서 YS자료로 이동하는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세 가지 변수(Cseduy1, Cseduy2, Eduworkst)를 이용하였다. Cseduy1은 고교졸업 후 취학상태를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상급교육기관에 취학하지 않음(0); 풀타임으로 취학(1); 파트타임으로 취학(2); 일시적으로 취학하였으나 조사시점에는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3). Cseduy2는 취학상태를 교육기관별로 세분화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미취학 및 미고용(0); 풀타임 취업(1)²⁾; 상급교육기관 진학(technical/trade/ vocational school, 11); 상급교육기관 진학(communitary college, 12); 상급교육기관 진학

²⁾ 풀타임 취업은 연간 40주 이상 주당 40시간 이상 노동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CEGEP³), General and Vocational College, 13); 상급교육기관 진학 (business school, training institute, 14); 상급교육기관 진학(university, 15); 상급교육기관 진학(여타 교육기관, 16). Eduworkst는 취학상태와 고용상태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미취학 및 미취업 (0); 풀타임 취업 (1); 풀타임 진학, 미취업 (10); 풀타임 진학, 파트타임 취업 (12); 파트타임 진학, 파트타임 취업 (22); 일시적 교육기관 등록, 파트타임 취업 (32). 교육투자 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 더미(Sexy), 연령(efageyc), 결혼 여부(D-Mari), 거주지 인구규모(Size), 해당 연도에 졸업여부에 대한 더미(D_giyr), 고교졸업시 거주지의 실업률(giyrUN), 가구원수(nHHMc), 가구내 아동수(nCinHHc), 가구내 성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수(nSibinHHc), 성인이 된 가구주의 자녀의 수(nAdlinHHc), 가구소득(tincHdivMan), 교육투자에 대한 지원정책 수혜 여부(정부보증 대출자 D_GSL, RESP 이용자 D_RESP, 장학금 수혜자 D_Sch), 고교재학시 학업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pf_ovrall), 아동의 MPK와 그 배우자의 학력 (eduap1, edusp1)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SECD 자료에는 cycle 3-8 자료만 포함되어 있다. cycle 1-2에는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각 cycle에 포함된 성인의 수는 36,729(cycle 3), 36,807(cycle 4), 29,884 (cycle 5), 26,082(cycle 6), 41,082(cycle 7), 32,060(cycle 8)이다. 소득변수로 노동소득과 비자산소득(=노동소득+사업소득) 두 종류의 소득을 사용하였다. 취업상태에 대한 변수(Workstatus)는 3가지 상태로 분류하였다: 실업 (0); 풀타임 취업 (1); 파트타임 취업 (2). 설명변수로는 연령 (Age), 연령의 제곱, 고교졸업시 거주지의 실업률(giyrUN), 교육수준(DD_edu1_2, DD_edu3_9, DD_edu11_13)⁴), giyrUN과 교육수준 더미간 상호작용 변수 (DD_e12yUN, DD_e39yUN, DD_e1113gyUN)가 포함된다. 여타 요인의 통제는 거주하는 province, 언어구사능력, 인구학적 특성, 인종 문화적 특성, (각 개인이 속한) 직업군 및 산업군, 그리고 (경기변동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연도에 대해 이루어졌다.

3) GEGEP는 퀘벡주에 소재한 고교졸업자를 위한 일반 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공공 교육기관이다.

4) 각 더미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여타 고교이상 학력, 고교졸업 미만 학력을 의미한다. 이들 더미는 각각 <부표 1>의 교육더미 D_edu1과 D_edu2, D_edu3과 D_edu9, D_edu11, D_edu12, D_edu13을 결합한 것이다.

III. 실증분석

본 절의 분석은 교육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요인 분석, 장기소득결정요인 분석, 그리고 취업의 안정성 결정요인 분석으로 분류된다.

1. 교육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요인 분석

교육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 식 (1)과 같은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이용하였다.

$$YE = \alpha + \beta giyr + \gamma giyrUN + \delta age + \theta_1 D_GSL + \theta_2 D_RESP + \theta_3 D_Sch + X_1' \eta_1 + \epsilon_1 \quad (1)$$

여기서 종속변수(YE)로 II절에서 설명한 $Csedy1(E1)$, $Cseduy2(E2)$, $Eduworkst(E3)$ 세 종류의 변수를 이용하였다. 중요 설명변수는 YS 자료의 각 cycle에 졸업한 청년 더미($giyr$), 졸업당시의 거주지의 실업률($giyrUN$), 연령, 교육투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혜자 더미 (D_GSL , D_RESP , D_Sch)이며, 여타 통제변수(X_1)로는 가구원수($nHHMc$), 가구내 아동수($nCinHHc$), 형제·자매 수($nSibinHHc$), 성인이 된 자녀의 수($nAdlinHHc$), 가구소득, 고교 재학시 학업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pf_ovral1), 아동의 MPK와 그 배우자의 학력 ($eduapl$, $edusp1$) 등 이다. 모형의 기준점은 $Csedy1(E1)$ 의 경우 미취학 미고용 상태(0)이며, 다른 두 가지 경우는 풀타임 취업(1)으로 하였다.

위의 식 (1)을 이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가 후퇴함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률이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기후퇴의 지표로 사용한 실업률의 상승과 당해연도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계수 β 를 비교한 [그림 1]에 의하면, $Csedy1(E1)$ 의 경우 해당연도 고교졸업자가 풀타임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보다 파트타임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실업률의 상승과 진학률간의 양의 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⁵⁾.

5) $giyrUN$ 의 계수도 모든 연도에 걸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졸업 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상급학교 진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Csedy1(E1)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풀타임 상급진학간의 명확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교육기관 종류별로 세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실업률과 진학률간의 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속변수로 Csedy2(E2)를 사용한 경우 대학진학률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경우 모두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여타 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도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와 상급학교 진학상태를 결합한 Eduworkst (E3)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 실업률과 진학률간의 양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진학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전적으로 학업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경기에 고교를 졸업한 세대들이 교육투자를 늘림으로써 불경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저소득층에도 발생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다소 성급한 일이다. [그림 2]는 Csedy1(E1)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과 고교시절 학업 및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의 평가수준이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가구소득과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고교시절의 활동상황이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경기변동간의 관계를 분석한 Sakellaris and Spilimbergo(2000)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미국 대학에 등록하는 외국학생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OECD국가 출신의 학생의 등록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인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OECD국가 이외 국가 출신의 등록은 경기동행적(procyclical)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전자의 경우 교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교육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후자의 경우 지불능력과 신용제약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가별 비교시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기후퇴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의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캐나다의 미시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고교를 졸업한 세대들의 교육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더불어 이들 청년들보다 이전에 고교를 졸업한 세대들의 의사결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아래

식 (2)의 logit 모형을 이용하였다.

$$EA = \alpha_1 D_gr7680 + \alpha_2 D_gr8185 + \alpha_3 D_gr8690 + \alpha_4 D_gr9195 + \beta giyrUN \\ + \gamma_1 D_gr7680UN + \gamma_2 D_gr7680UN + \gamma_3 D_gr7680UN + \gamma_4 D_gr7680UN \quad (2) \\ + X_2' \eta_2' + \epsilon_2$$

여기서 종속변수(EA)는 학력수준을 나타내는데, 학력수준은 대학졸업 이상 학력 여부를 나타내는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이다. 설명변수로는 졸업연도를 표시하는 더미변수, 졸업당시의 실업률 수준(giyrUN), 졸업연도 더미 변수와 giyrUN간의 상호작용 변수들이다. 졸업연도 더미 변수 중 D_gr7680은 1976년과 1980년 기간 동안 졸업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으며, D_gr7680UN은 D_gr7680×giyr을 의미한다. 통제변수(X₂)로 거주지(province), 언어구사능력, 인구학적 특성, 인종 문화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표 1>에 의하면 고교 졸업연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졸업자에 비하여 1980년대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졸업자 더미의 계수가 1980년대 후반 졸업자 더미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이 1990년대 초반 졸업자들의 대학진학률이 낮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식 (2) 추정치에 이용된 자료는 LSECD의 cycle 3-8 자료로서 자료 연도가 1998년부터 2008년도이다. 이 표본에 속해 있는 성인들 중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고교를 졸업한 사람 중 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교 졸업연도 더미의 계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졸업당시의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giyrUN과 졸업연도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giyrUN의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방정식 1),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하면 이 계수가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방정식 2). 또한 상호작용 변수의 계수가 졸업연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졸업당시 실업률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이에 대한 요인 분석을 할 수는 없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숙련노동에 편향된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학력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

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 (1)의 교육투자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혜자 더미 (D_GSL, D_RESP, D_Sch)의 계수를 비교함으로써 교육투자 지원정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그림 3]). 이들 계수들은 대부분의 경우 95% 혹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edusy1을 기준으로 했을 때 RESP 수혜가 상급학교 진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타임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Cedusy1=1)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Cedusy1=2)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RESP의 경우 호경기 때보다 불경기에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보증대출의 경우 불경기보다 호경기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RESP는 실업률이 낮은 2008년보다 실업률이 높은 2004년대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진학학교의 종류를 세분화한 Ceduy2를 기준으로 보면, RESP의 효과의 절대적인 수준이 정부보증대출의 효과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RESP의 효과가 다른 지원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경기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기관을 대학(Ceduy2=15, 25)과 여타 기관(Ceduy2=11-14, 16, 21-24, 26)으로 분류하여 보면, 교육투자자에 대한 지원책의 효과는 대학교육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보증대출 이용자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실업률이 낮은 연도에 비하여 실업률이 높은 연도의 효과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RESP의 경우 여타 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경기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SP는 실업률이 낮은 2008년에 비하여 실업률이 높은 2004년에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2004년과 2008년 수준의 사이에 있는 2006년에서의 효과가 2004년에서의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 정책효과의 절대적 수준이 실업률 수준변화와 일률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여타 제도의 효과가 경기가 후퇴할수록 그 효과가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RESP는 불경기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급학교 진학의 형태(풀타임, 파트타임)와 교육기관의 형태의 차이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다. RESP의 효과가 파트타임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가 풀타임으로 진학한 경우에 비하여 그 효과의 절대적인 수준은 낮지만 여타 제도에 비교한 상대적 효과는 파트타임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급학교와 취업형태를 결합한 Eduworkst를 기준으로 보면 풀타임으로

로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 RESP 효과의 절대적인 수준은 정부보증 대출에 비하여 낮지만 상대적으로 불경기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파트타임 취업을 병행하면서 풀타임 상급학교 진학을 한 경우(Eduworkst=12)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이 가장 높은 2004년의 경우는 RESP의 효과의 절대적인 수준이 여타 제도의 효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파트타임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는 RESP의 효과의 절대적인 수준과 불경기에서의 제도의 효과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RESP의 효과가 불경기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 제도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계층인 점에 기인할 수 있다. RESP는 고교 졸업이후 교육비 지출에 대비한 저축상품이므로 자금이 다소 여유가 있는 소득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교에서 성적과 여타 활동이 활발한 학생이 향후 대학 진학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보호자가 고려하여 이러한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본 절의 분석에서는 해당 조사대상자가 속했던 가계의 관찰 가능한 가장 최근의 가구소득과 고교시절의 학업과 전반적인 활동상황에 대한 평가변수를 이용하여 통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사료된다⁶⁾.

2. 장기소득결정 요인 분석

졸업시 경제상황과 교육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으로 소득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아래 식 (3)을 이용하였다.

$$YI = \alpha + \beta giyrUN + \gamma_1 age + \gamma_2 age^2 + \mu_1 DD_g1_2 + \mu_2 DD_g3_9 + \mu_3 DD_g11_13 + \mu_4 DD_g12gUN + \mu_5 DD_g39gUN + \mu_6 DD_g1113gUN + X_3' \eta_3 + \epsilon_3 \quad (3)$$

II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 (3)의 종속변수로 노동소득과 비자산소득을 이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 연령, 졸업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지표(giyrUN)와 학

6) 식 (1)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가구의 소득과 고교시절 활동상황에 대한 평가가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효과는 불경기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경기가 악화될수록 자금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교육예산의 삭감 등으로 인해 장학금 수혜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가구소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대학의 입학 사정이 고교 성적 등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력더미 그리고 학력더미와 giyrUN의 상호작용 변수, 그리고 개인의 특성과 경기변동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들을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식 (3)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졸업당시의 실업률 수준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학력수준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표 2>). 여성의 경우 giyrUN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으며,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 추정 결과로 볼 때 졸업당시의 실업률 수준이 1%P 상승시 연간 노동소득이 727 CAD(캐나다 달러)의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4년과 2008년 사이의 캐나다의 실업률의 격차가 약 1.2%P인 점을 감안하면 두 연도의 졸업자는 연간 소득격차는 약 872 CAD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 졸업시 경제상황이 노동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70년 이후 캐나다의 평균 실업률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비교하면 그 격차가 약 5.2%P인데 이 경우 연간 노동소득의 격차가 약 3,800 CAD로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대학 학력 이상 소지자는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에 비하여 남자의 경우 12,300 CAD, 여성의 경우 5,800 CAD 연간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졸업시 실업률 수준에 비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각 cycle의 자료를 통합한 샘플을 이용한 OLS 추정결과에 의하면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고교를 졸업하여 소득이 낮아진 사람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그 금액의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으며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경우 해당 계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province)를 통제하지 않으면 OLS 모형 사용시 giyrUN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할 경우 해당 계수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비자산소득(=노동소득+사업소득)으로 할 때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노동소득을 이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giyrUN와 DD_edu1_2의 계수가 다소 크다는 것과 고정효과모형에서 남성의 DD_e12gUN의 계수가 유의하게 음의 값을 보인다는 점이다. 불경기에 고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교육을 받더라도 불경기의 여파로 사업소득의 수준이 다소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규모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식 (3)을 추정된 결과 giyrUN의 직접적인 효과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크지 않지만, 이 결과에 입각하여 졸업당시의 경제상황이 장기적으로 소득에 영

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졸업당시의 경제상황이 해당 조사대상자의 직업선택과 종사하는 산업군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군과 산업군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져서 장기적으로 소득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식 (4)의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이용하였다.

$$\begin{aligned}
 YCI = & \alpha + \beta giyrUN + \gamma_1 age + \gamma_2 age^2 \\
 & + \mu_1 D_g1gUN + \mu_2 D_g2gUN + \mu_3 D_g3gUN + \mu_4 D_g9gUN \\
 & + \phi_1 D_edu1 + \phi_2 D_edu2 + \phi_3 D_edu3 + \phi_4 D_edu9 + X_4' \eta_4 + \epsilon_4
 \end{aligned} \quad (4)$$

여기서 교육수준 더미 D_edu1 , D_edu2 , D_edu3 , D_edu9 는 <부표 1>에서 정의하였듯이 대학원 졸업, 대학졸업, community college와 같은 초급대학 수준, 그리고 그 이외의 고등교육 취득자에 대한 더미이며, D_g1gUN , D_g2gUN , D_g3gUN , D_g9gUN 은 각 교육수준더미와 $giyrUN$ 간의 곱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X_4 에는 이민 여부, 언어구사능력 그리고 여타 개인의 특성을 포함하였다. 종속변수(YCI)로는 각 개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과 산업군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림 4]는 $giyrUN$ 과 교육수준이 각 직업군과 산업군에 취업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접근가능성에 대한 효과는 $giyrUN$ 과 교육수준 더미의 계수로 파악될 수 있다. 각 직업군과 산업군의 특성은 기준이 되는 직업군 및 산업군의 평균 소득(노동소득 혹은 비자산소득)과 비교한 평균 소득수준으로 나타내었다. 각 부문의 소득의 상대적 수준과 $giyrUN$ 및 교육수준 더미의 계수간의 상관관계가 양(음)이 된다는 것은 $giyrUN$ 이 높아질수록 혹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은 직업군 혹은 산업군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나는(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하여 $giyrUN$ 과 교육수준의 계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우만 포함하였다. [그림 4]에 의하면 각 부문의 노동소득 및 비자산소득 수준과 $giyrUN$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으며, 이들 간의 상관계수도 음으로 나타났다(<표 4>). 따라

서 고교졸업 당시의 실업률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노동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높은 직종과 산업군에 대한 접근성을 줄임으로써 생애소득을 낮추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Gibbons and Waldman(2006)이 제시하였듯이 경기침체가 좋은 직업경로(career track)와 기술축적을 용이하게 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고교졸업시 경제상황이 나쁠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교졸업후 추가적인 교육을 받을 경우 노동소득이 높은 직업군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그림 4]는 교육수준 더미의 계수와 소득 수준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 <표 4>도 양자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추가적인 교육의 효과는 소득이 높은 직업군에 대한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을 제외한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여부와 산업간 소득수준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경기에 고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양육된 청년들이 교육투자 자금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상급학교 진학을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소득이 높고 또한 수익성이 높은 직업군과 산업군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이것이 이들의 소득과 후생복지 저해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추정된 추가적인 교육투자 여부에 대한 계수가 giyrUN에 대한 계수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는 불경기로 인해 전망이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 소득하락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투자를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소득감소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고용안정성 결정요인 분석

고교 졸업시 경제상황이 고용의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사용하였다.

$$YE = \alpha + \beta giyrUN + \mu_1 DD_e12gUN + \mu_2 DD_e39gUN + X_5' \eta_5 + \epsilon_5 \quad (5)$$

종속변수로 Workstatus(1: 실업, 1: 풀타임 취업, 2: 파트타임 취업)와 고용상태의 전환형태를 사용하였다. 고용상태 전환변수는 Tprob0, Tprob1, Tprob2로 표시하는데, 각각 실업상태로부터의 전환, 풀타임 취업으로부터의 전환, 파트타임 취업으로부터의 전환을 나타내며 이들 값이 0일 경우 실업상태로의 전환, 1일 경우 풀타임 취업으로의 전환, 2일 경우는 파트타임 취업으로의 전환을 표시한다. 통제변수(X_5)로는 연령, 학력수준, 거주지 위치, 인구학적 요인, 직업군, 산업군, 그리고 연도더미 등을 사용하였다.

식 (5)의 추정결과는 giyrUN이 고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표 5>). 교육수준과 giyrUN과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DD_e12gUN, DD_e39gUN)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남성의 경우 giyrUN의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반면 여성의 경우 고교졸업시 경제상황이 나쁠 경우 취업상태가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 형태에 머물 가능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할 경우 남성의 경우도 giyrUN의 부정적인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고 상호작용 변수의 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교 졸업시의 불경기는 풀타임 취업의 기회를 줄여 고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반면 상급학교 진학을 통한 교육투자는 이러한 위험성을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iyrUN은 실업상태로부터 풀타임 취업으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들 불운한 세대의 고교졸업후 추가적인 인적자본 투자는 풀타임 취업으로의 전환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표 6>). 이러한 결과는 남녀를 포함한 전체 표본을 이용할 때도 나타나나 특히 남성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또한 giyrUN이 높을수록 풀타임 취업으로부터 고용상태가 파트타임으로 악화되는 위험성이 증가하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고교졸업시 경험한 경기불황이 이 불황을 경험한 세대들의 장기 소득 및 고용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복지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복지제도가 이 불운한 세대들의 고교 졸업후 교육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이 의사결정이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NLSCY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경기에 졸업한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 보다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보다도 여타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 그리고 풀타임으로 진학하는 경우보다도 파트타임으로 진학하는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인적자본의 투자의 비용이 낮아져 직업훈련과 같은 단기간동안의 인적자본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Kim and Lee(2007))와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졸업후 평생직업과 추가적인 인적자본 투자간의 의사결정은 단기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고교졸업시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행한 실증분석의 성과라고 사료된다.

불황기 도래시 교육투자에 대한 지원책들은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RESP 이용자들이 정부보증대출 이용자와 장학금 수혜자보다 불황기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정부보증 대출과 장학금 수혜의 효과는 불경기보다는 호경기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RESP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경기에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경기에 고교를 졸업한 세대들의 교육투자를 돕기 위해서는 RESP와 같은 교육투자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1997-8년 경제위기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소득수준과 고용안정성 격차는 고교졸업시 경제 상황보다는 교육투자,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이 종사하는 직업군과 산업군의 차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불경기 도래시 충분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수준과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직업군과 산업군에 대한 접근성이

줄어들어 생애소득이 낮아지는 위험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황기 도래 시 이루어지는 교육투자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불경기가 교육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불경기로 인한 소득감소의 직접적인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러한 효과가 대학보다는 여타 교육기관 그리고 풀타임 보다는 파트타임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황기에 교육투자를 늘리는 것이 평생 직업에 대한 신중한 고려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불황기의 일시적인 실업상태 혹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로부터 도피행위의 결과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기가 나쁠수록 가구소득과 교육투자 수준간의 양(+)의 관계가 더 강해진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경기가 나쁠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학생들의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을 저해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하고 있다.

실증분석의 전반적인 결과는 불경기에 고교를 졸업한 불행한 세대들, 특히 이들 중 저소득계층의 청년의 생애소득과 고용의 안정성 나아가 후생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에서 RESP와 같은 교육저축상품이 다른 지원책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RESP가 불경기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점 이외에도 이 제도가 소득세법상 교육비 공제와 같이 교육비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 긴 기간 동안 자금을 축적하는 저축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정부보증대출과 장학금과 같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은 정부의 예산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경기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 불경기에 세원의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조세징수를 위해 유효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초과부담 상승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불황기에는 부채상환의 부담을 더욱 크게 인식될 수 있어 정부보증 대출의 이용을 꺼리는 경향도 우려할만하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교육기관 수수료 후 부채상환의 문제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반면 RESP와 같은 저축에 대한 지원은 불경기뿐만 아니라 호경기를 포함한 장기간의 자금 축적을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학생과 부모들의 부담을 장기간동안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 이 저축상품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의 부담이 불경기에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장기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RESP와 같은 저축상품의 수혜자가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계층별 차등지원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 교육수준 결정 요인

변수	방정식 1	방정식 2
D_gr7680	0.221*** (0.059)	0.706*** (0.168)
D_gr8185	0.449*** (0.053)	0.656*** (0.154)
D_gr8690	0.657*** (0.046)	0.996*** (0.136)
D_gr9195	0.549*** (0.050)	0.591*** (0.145)
giyrUN	0.013 (0.011)	0.032*** (0.014)
D_gr7680UN	-	-0.058*** (0.019)
D_gr8185UN	-	-0.022 ²⁾ (0.015)
D_gr8690UN	-	-0.037*** (0.014)
D_gr9195UN	-	-0.007 (0.014)
통제변수:		
Province	✓	✓
언어구사능력	✓	✓
인구학적 특성 ¹⁾	✓	✓
인종 문화적 특성	✓	✓

주: 1) 성별, 이민 여부 등

2) p-value: 0.13

***: 신뢰수준 99% 수준에서 유의함

<표 2> 노동소득 결정방정식

	OLS		FixedEffect		OLS		FixEffect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Age	1,174*** (409.5)	571** (239.8)	1,108* (641.1)	1,018** (439.0)	1,406*** (412.0)	884*** (240.2)	1,096* (640.0)	972** (438.4)
Age2	-12** (5.6)	-2 (3.4)	-10 (6.8)	-14*** (4.3)	-17*** (5.6)	-7** (3.4)	-10 (6.8)	-14*** (4.3)
giyrUN	-39 (121.4)	-84 (82.9)	-727** (346.8)	273 (228.1)	-894*** (113.0)	-265*** (78.9)	-767*** (249.6)	-21 (164.4)
DD_e12gUN	185** (87.0)	150*** (50.6)	-353(231.3)	-92 (139.0)	183** (87.5)	106** (50.7)	-344 (230.6)	-130 (138.5)
DD_e39gUN	199*** (74.8)	103** (44.4)	-105 (145.8)	28 (89.5)	170** (75.1)	78* (44.5)	-103 (145.8)	23 (89.5)
D_e1113gUN	-38 (98.6)	-46 (67.5)	41 (198.5)	3 (139.7)	-12.1 (99.2)	-54 (67.7)	41 (198.5)	2 (139.6)
DD_edu1_2	12,773*** (898.0)	5,947*** (529.9)	12,332*** (2,336.3)	5,794*** (1,449.3)	12,965*** (902.3)	6,544*** (531.0)	12,187*** (2,330.5)	6,464*** (1,445.1)
DD_edu3_9	1,654** (771.0)	714(462.4)	1,715 (1,502.0)	302 (937.6)	2,135*** (774.7)	1,089** (463.6)	1,687 (1,501.4)	1,038 (937.5)
DD_edu11_13	3,247*** (1,028.9)	-340 (710.1)	37 (2,084.6)	88 (1,493.1)	-3,911*** (1,035.4)	-246 (712.1)	23 (2,084.0)	98 (1,492.8)
특성 통제:								
Province	✓	✓	✓	✓	-	-	-	-
언어구사 능력	✓	✓	✓	✓	✓	✓	✓	✓
인구학적 특성	✓	✓	✓	✓	✓	✓	✓	✓
인종 문화 특성	✓	✓	✓	✓	✓	✓	✓	✓
직업군	✓	✓	✓	✓	✓	✓	✓	✓
산업군	✓	✓	✓	✓	✓	✓	✓	✓
연도더미	✓	✓	✓	✓	✓	✓	✓	✓
R2	0.223	0.359	0.013	0.195	0.211	0.354	0.012	0.192
# of Obs	85,557	99,060	85,557	99,060	85,557	9,060	85,557	99,060

주: 괄호속의 수는 표준오차임.
 *: 신뢰수준 90% 수준에서 유의함
 **: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함
 ***: 신뢰수준 99% 수준에서 유의함

<표 3> 비자산소득 결정방정식

	OLS		Fixed Effect		OLS		Fix Effect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Age	2,002*** (411)	780*** (253)	2,822 (617)	1,021** (448)	2,257*** (415)	1,068*** (253)	2,798*** (616)	992** (447)
Age2	-20*** (6)	-3 (4)	-30 (7)	-16*** (4)	-25 (6)	-8** (4)	-30*** (7)	-16*** (4)
giyrUN	-217* (122)	-206** (87)	-697** (334)	121 (233)	-1,292*** (114)	-440*** (83)	-907*** (240)	-64 (168)
DD_e12gUN	124 (88)	225*** (53)	-501 (222)	-105 (142)	135 (88)	184*** (53)	-490** (222)	-134 (141)
DD_e39gUN	238*** (75)	117** (47)	-84 (140)	-80 (91)	192** (76)	3 (71)	-81 (140)	-84 (91)
DD_e1113gUN	-304*** (99)	4 (71)	11 (191)	-32 (142)	-279*** (100)	93** (47)	11 (191)	-33 (142)
DD_edu1_2	13,149*** (901)	6,250*** (558)	11,564*** (2,247)	4,996*** (1,478)	13,217*** (908)	6,797*** (559)	14,087*** (2,241)	2,741* (1,474)
DD_edu3_9	1,230 (773.4)	366 (487)	1,390 (1,444)	1,238 (956)	690 (780)	746 (488)	1,354 (1,444)	1,271 (956)
DD_edu11_13	-937 (1,032.1)	-1,108 (748)	156 (2,005)	56 (1,523)	-1,707 (1,042)	-1,111 (750)	141 (2,004)	71 (1,523)
Controlled for:								
Province	✓	✓	✓	✓	-	-	-	-
언어구사 능력	✓	✓	✓	✓	✓	✓	✓	✓
인구학적 특성	✓	✓	✓	✓	✓	✓	✓	✓
인종 문화 집단	✓	✓	✓	✓	✓	✓	✓	✓
직업군	✓	✓	✓	✓	✓	✓	✓	✓
산업군	✓	✓	✓	✓	✓	✓	✓	✓
연도더미	✓	✓	✓	✓	✓	✓	✓	✓
R2	0.279	0.370	0.025	0.183	0.264	0.365	0.021	0.179
# of Obs	85,557	99,060	85,557	99,060	85,557	99,060	85,557	99,060

주: 괄호속의 수는 표준오차임.

*: 신뢰수준 90% 수준에서 유의함

**: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함

***: 신뢰수준 99% 수준에서 유의함

<표 4> 추정계수와 소득간 상관관계

		giyrUN에 대한 추정계수			
직업군 선택	노동소득	-0.189			
	비자산소득	-0.337			
산업군 선택	노동소득	-0.181			
	비자산소득	-0.759			
	추정계수:	D_edu1	D_edu2	D_edu3	D_edu9
직업군 선택	노동소득	0.534	0.370	0.418	0.403
	비자산소득	0.594	0.384	0.563	0.452
산업군 선택	노동소득	-0.567	0.527	0.570	0.463
	비자산소득	-0.589	0.505	0.607	0.452

<표 5> 취업상태 결정방정식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플타임 취업	성별더미	1.152*** (0.029)	-	-	1.165*** (0.029)	-	-
	giyrUN	0.000 (0.007)	-0.005 (0.012)	-0.005 (0.008)	-0.018* (0.010)	-0.036* (0.019)	-0.019 (0.012)
	DD_e12gUN	-	-	-	0.045*** (0.011)	0.076*** (0.020)	0.032** (0.013)
	DD_e39gUN	-	-	-	0.025*** (0.009)	0.047*** (0.018)	0.015 (0.011)
파트타임 취업	성별더미	-0.124** (0.056)	-	-	-0.124** (0.056)	-	-
	giyrUN	0.018* (0.010)	0.025 (0.026)	0.020* (0.011)	0.034** (0.014)	0.052 (0.035)	0.033** (0.015)
	DD_e12gUN	-	-	-	-0.036** (0.016)	-0.078* (0.043)	-0.028 (0.017)
	DD_e39gUN	-	-	-	-0.017 (0.013)	-0.034 (0.032)	-0.014 (0.014)
변수통제:	연령집단	✓	✓	✓	✓	✓	✓
	학력수준	✓	✓	✓	✓	✓	✓
	Province	✓	✓	✓	✓	✓	✓
	인구학적 특성	✓	✓	✓	✓	✓	✓
	직업군	✓	✓	✓	✓	✓	✓
	산업군	✓	✓	✓	✓	✓	✓
	연도더미	✓	✓	✓	✓	✓	✓

주: 괄호속의 수는 표준오차임.

*: 신뢰수준 90% 수준에서 유의함

**: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함

***: 신뢰수준 99% 수준에서 유의함

<표 6> 고용상태 전환 방정식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실업상태로부터 전환							
풀타임 으로	D_Sex	1.152*** (0.029)	-	-	1.165*** (0.029)	-	-
	giyrUN	0.000 (0.007)	-0.005 (0.012)	-0.005 (0.008)	-0.018* (0.010)	-0.036* (0.019)	-0.019 (0.012)
	DD_e12gUN	-	-	-	0.045*** (0.011)	0.076*** (0.020)	0.032** (0.013)
	DD_e39gUN	-	-	-	0.025*** (0.009)	0.047*** (0.018)	0.015 (0.011)
파트타임 으로	D_Sex	-0.124** (0.056)	-	-	-0.124** (0.056)	-	-
	giyrUN	0.018* (0.010)	0.025 (0.026)	0.020* (0.011)	0.034** (0.014)	0.052 (0.035)	0.033** (0.015)
	DD_e12gUN	-	-	-	-0.036** (0.016)	-0.078* (0.043)	-0.028 (0.017)
	DD_e39gUN	-	-	-	-0.017 (0.013)	-0.034 (0.032)	-0.014 (0.014)
풀타임 고용으로부터 전환							
풀타임 으로	D_Sex	0.519*** (0.030)	-	-	0.524*** (0.030)	-	-
	giyrUN	0.007 (0.007)	0.011 (0.009)	0.000 (0.012)	-0.001 (0.010)	0.011 (0.013)	-0.030* (0.017)
	DD_e12gUN	-	-	-	0.008 (0.011)	-0.001 (0.014)	0.029 (0.018)
	DD_e39gUN	-	-	-	0.012 (0.010)	0.000 (0.012)	0.039** (0.017)
파트타임 으로	D_Sex	-0.163** (0.073)	-	-	-0.166** (0.073)	-	-
	giyrUN	0.020 (0.016)	0.047** (0.020)	-0.027 (0.027)	0.035 (0.022)	0.063** (0.027)	-0.020 (0.039)
	DD_e12gUN	-	-	-	-0.082*** (0.025)	-0.106*** (0.033)	-0.042 (0.040)
	DD_e39gUN	-	-	-	-0.001 (0.020)	0.002 (0.025)	0.003 (0.036)

파트타임으로부터 전환							
파트타임 으로	D_Sex	1.260*** (0.091)	-	-	1.260*** (0.091)	-	-
	giyrUN	-0.028* (0.017)	-0.024 (0.034)	-0.036* (0.021)	-0.030 (0.024)	-0.062 (0.047)	-0.037 (0.031)
	DD_e12gUN	-	-	-	0.021 (0.027)	0.004 (0.060)	0.029 (0.033)
	DD_e39gUN	-	-	-	0.008 (0.022)	0.073* (0.041)	-0.007 (0.029)
파트타임 으로	D_Sex	0.382*** (0.095)	-	-	0.372*** (0.096)	-	-
	giyrUN	0.016 (0.018)	0.020 (0.036)	0.014 (0.021)	0.039* (0.024)	0.001 (0.048)	0.046 (0.028)
	DD_e12gUN	-	-	-	-0.070** (0.028)	-0.021 (0.078)	-0.066** (0.032)
	DD_e39gUN	-	-	-	-0.023 (0.021)	0.017 (0.044)	-0.024 (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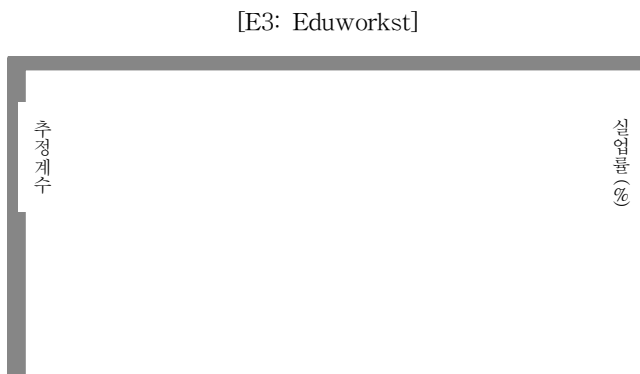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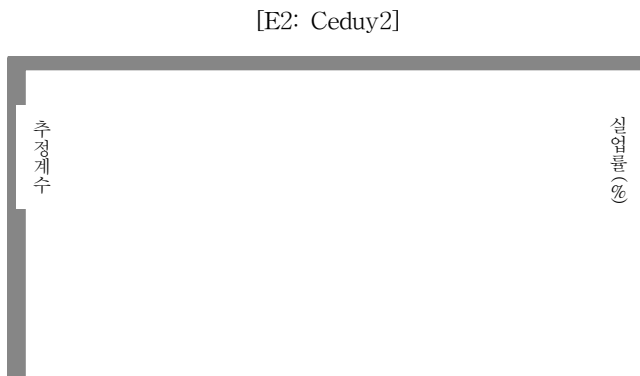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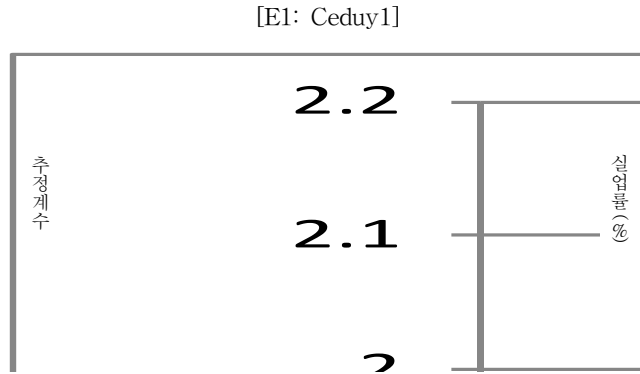
주: 괄호속의 수는 표준오차임.

*: 신뢰수준 90% 수준에서 유의함

**: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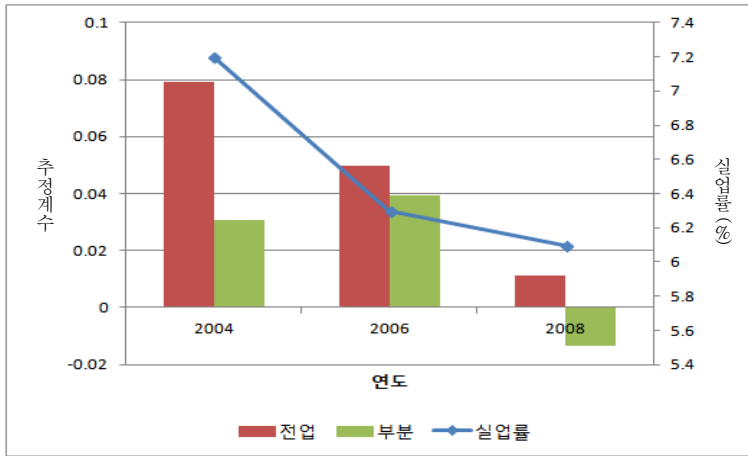
***: 신뢰수준 99%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1] 졸업시기의 교육투자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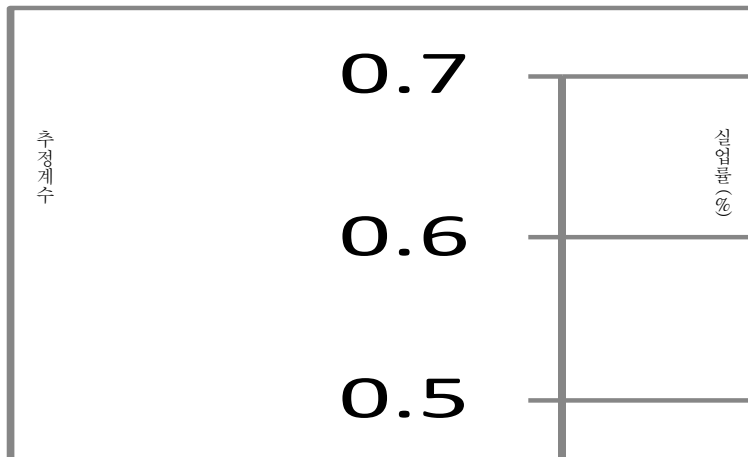


[그림 2] 소득과 학업 성취도의 교육투자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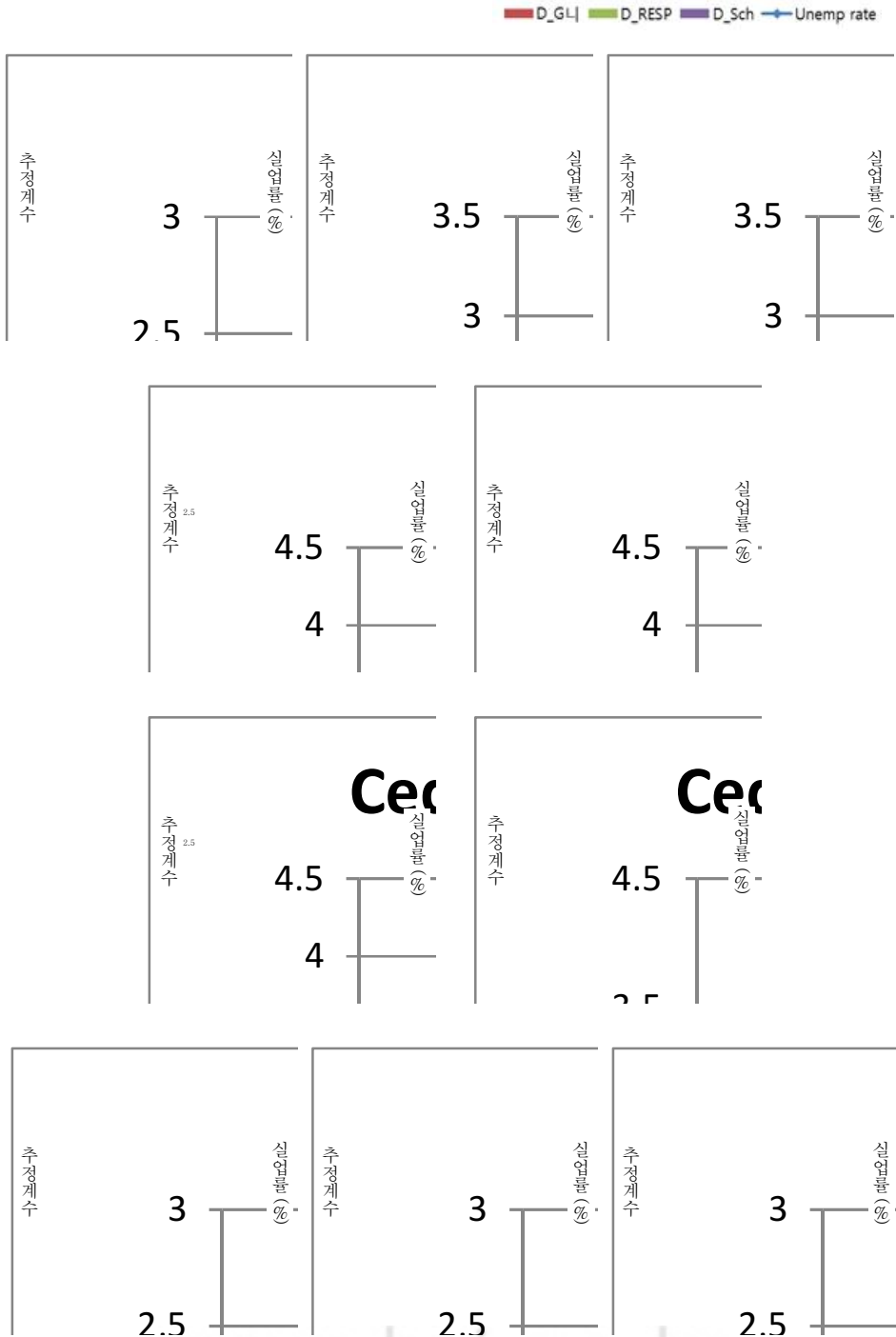
[소득의 효과, E1: Ceduy1 기준]



[학업성취도의 효과, E1: Ceduy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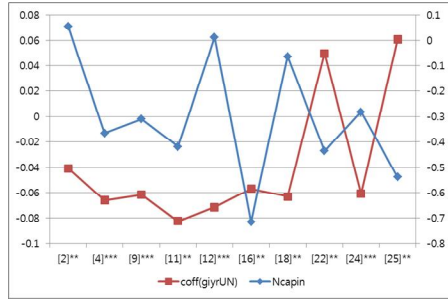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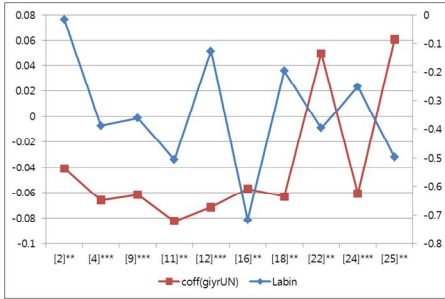


[그림 3] 교육비 보조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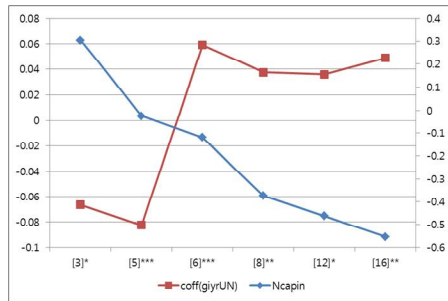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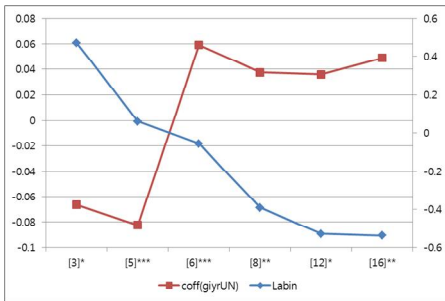


[그림 4] 직업군과 산업군에 대한 접근성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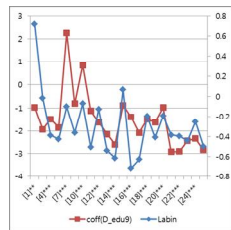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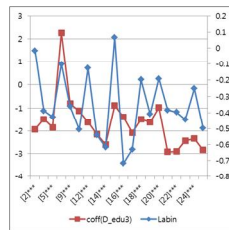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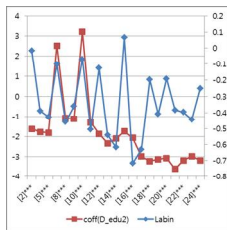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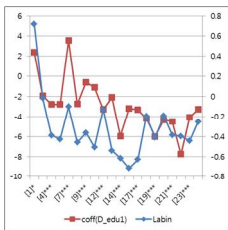
[GiyrUN vs. 직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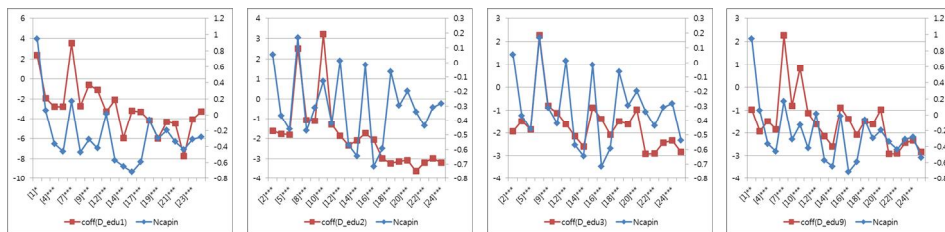


[GiyrUN vs. 산업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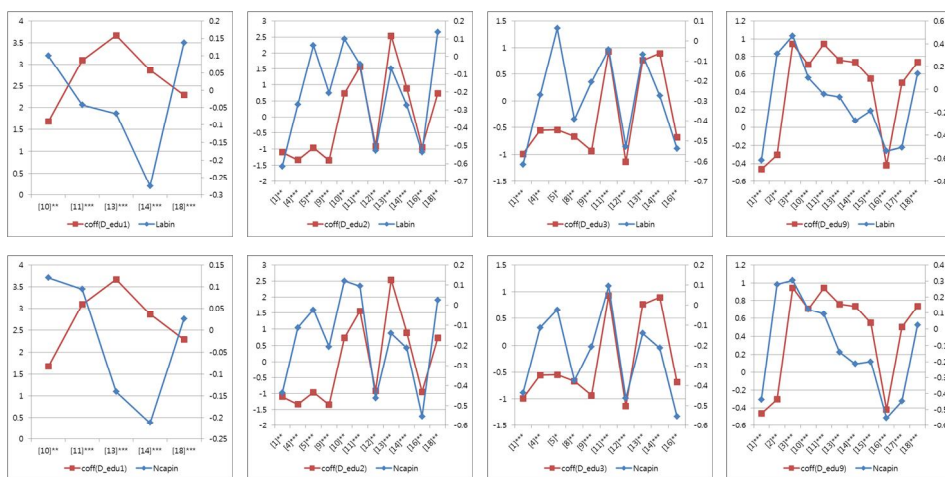


[학력 vs. 직업군]





[학력 vs. 산업군]



주: *: 신뢰수준 90% 수준에서 유의함
 **: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유의함
 ***: 신뢰수준 99% 수준에서 유의함

<부록> 변수에 대한 정의

[부표 1] 변수에 대한 정의

분 류	변 수	정 의
교육 및 고용상태	Eduworkst	0: 실업상태 1: 완전취업(full-time employment) 10: 전업 고등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12: 전업 고등교육+ 부분취업 (part-time employment) 22: 부분 고등교육(Part-time post-secondary education) + 부분 취업 32: 일시적 고등교육 등록(Some post-secondary education) + 부분취업
	Csedy1	0: 고등교육 기관 등록 없음 1: 전업고등교육 2: 부분 고등교육 3: 일시적 고등교육 등록
	Csedy2	0: 실업상태 1: 완전취업 11: 교육기관 등록 (technical/trade/vocational school) 12: 교육기관 등록 (community college) 13: 교육기관 등록 (CEGEP) 14: 교육기관 등록 (business school or training institute) 15: 교육기관 등록 (university) 16: 교육기관 등록 (여타 교육기관)
소득	Labin	노동소득 (개인)
	Ncapin	비자산소득 (개인 노동소득+사업소득)
	tincHdivMan	가구소득 (청년이 속했던 가구의 가장 최근 소득)
고용안정성 지표	Workstatus	0: 실업상태 1: 완전취업 2: 부분취업
교육에 대한 보조	D_GSL	정부보증대출자 더미
	D_RESP	RESP 사용자 더미
	D_Sch	장학금 수혜자 더미
졸업연도	D_giyr2002	2002년 졸업
	D_giyr2003	2003년 졸업
	D_giyr2004	2004년 졸업
	D_giyr2005	2005년 졸업
	D_giyr2006	2006년 졸업
	D_giyr2007	2007년 졸업
	D_giyr2008	2008년 졸업

분 류	변 수	정 의
졸업연도의 경제상황 지표	giyrUN	졸업연도 현재 거주지의 실업률
고교 재학시 활동 지표	pf_ovral1	고교 재학시 학업성취도와 여타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평가
인구학적 특성	Age Age2 nHHM nCinHH Agech D_imm D_married D_LCA D_widowed D_Dov eduap1 eduasp1	연령 연령 제곱 가구원수 자녀수 첫 자녀 연령 이민자 더미 더미(결혼상태) 더미 (living in a common-law relationship) 더미 (미망인) 더미 (이혼상태) 보호자 교육수준(MKP) 보호자 교육수준 (spouse)
교육수준	D_edu1 D_edu2 D_edu3 D_edu9 D_edu10 D_edu11 D_edu12 D_edu13	더미(대학원 졸업) 더미(대학졸업) 더미(community college, CEGEP, nursing school 졸업) 더미(일부 고등교육 취득) 더미(중등학교(secondary school) 졸업) 더미(중등교육 일부 취득) 더미(초등학교 교육 취득(1 to 7 학년)) 더미(무교육)
언어구사 능력	D_Eng D_Fre	영어 구사 가능 불어 구사 가능
문화적 배경	D_cul1 D_cul2 D_cul3 D_cul4 D_cul5 D_cul6 D_cul7 D_cul8	캐나다 영국 프랑스 여타 유럽 문화권 중국 유태인 남아시아 흑인

분 류	변 수	정 의
인종집단	D_race20	백인
	D_race30	아메리카 원주민(Native/Aboriginal)
	D_race41	중국
	D_race42	남아시아
	D_race43	아랍/서아시아
	D_race44	필리핀
	D_race45	동남아시아
	D_race46	여타 아시아
	D_race50	라틴아메리카
	D_race70	흑인
산업분류	D_gind01	농업
	D_gind02	임업, 어업, 광업, 석유가스 채취업
	D_gind03	수도 전기 가스 서비스 산업(Utility)
	D_gind04	건설업(Construction)
	D_gind05	제조업(내구재)
	D_gind06	제조업(비내구재)
	D_gind07	도매업
	D_gind08	소매업
	D_gind09	수송 보관업
	D_gind10	금융, 보험, 부동산, 리스 산업
	D_gind11	전문직, 과학 기술 서비스업
	D_gind12	관리 행정 서비스
	D_gind13	교육서비스업
	D_gind14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D_gind15	정보, 문화, 오락 산업
	D_gind16	음식 숙박업
	D_gind17	여타 서비스 산업Other Services
	D_gind18	공공행정
직업군	D_gocc01	고위 관리직
	D_gocc02	여타 관리직
	D_gocc03	전문직(사업 및 금융업)
	D_gocc04	금융업, 비서 및 관리직
	D_gocc05	서기직(관리자 포함)
	D_gocc06	자연과학 및 응용과학 종사자
	D_gocc07	보건업 전문직, 간호사 및 관리직 간호사,
	D_gocc08	기술직, 보호직, 여타 관련 직종(보건업)

분 류	변 수	정 의
직업군	D_gocc09	사회과학 관련 직종, 정부서비스 및 종교관련 종사자
	D_gocc10	교사, 교수
	D_gocc11	예술, 문화, 오락 산업 종사자
	D_gocc12	도매, 기술, 보험, 부동산 판매 전문가 및 소매, 도매 공물 곡물 구입 전문가
	D_gocc13	소매 영업 담당자, 판매 점원, 출납원 (소매 무역 감독자 포함)
	D_gocc14	전문요리사, 요리사 및 여타 식품산업 및 음료 종사자 (관리자 포함)
	D_gocc15	경호 보호 산업 종사자
	D_gocc16	육아 및 가정 지원 근로자
	D_gocc17	여행 및 숙박업의 영업 및 서비스 직종, 오락 및 스포츠 산업 종사자 (관리자 포함)
	D_gocc18	무역 및 운송업 협력업체 관리자
	D_gocc19	건설거래자
	D_gocc20	여타 거래업 종사자
	D_gocc21	운송 및 장비 운영자
	D_gocc22	무역보조업, 건설업, 운송업 노동자와 관련 직종 종사자
	D_gocc23	일차산업 종사자
	D_gocc24	제조업의 기계 운영자, 조립라인 종사자 (관리자 포함)
	D_gocc25	가공업, 제조업, 유틸리티 산업 종사자

참 고 문 헌

- Aghion, P. and Saint-Paul, G., “Uncovering Som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roductivity Growth and the Structure of Economic Fluctuation: A Tentative Survey”, NBER working paper No. 4603, 1993.
- Blau, David, and Phillip K. Robins, “Job Search Outcomes for the Employed and Unemploy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3, 1993, 637-655.
- Bloemen, Hans g., “Job Search, Job Search Intensity,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40, No. 1, 2005, 231-269.
- Cross, Philip and Philippe Bergevin, “Turing Points: Business Cycles in Canada since 1926”, Commentary No. 366, C.D. Howe Institute, 2012.
- Gibbons, Robert, and Michael Waldman, “Enriching a Theory of Wage and Promotion Dynamics Inside Firm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24, No. 1, 2006, 59-107
- Heylen, F. and Pozzi, L., “Crises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40, No. 4, 2007, 1261-1285.
- Khan, Lisa, “The Long-term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raduating from College in a Bad Economy”, *Labor Economics*, Vol. 17, No. 2, 2010, 303-316.
- Kim, Daehaeng, and Chul-in Lee, “On-the-job Human Capital Accumulation in a Real Business Cycle Model: Implication for Intertemporal Substitution Elasticity and Labor Hoarding”, *Review of Economic Dynamics*, Vol. 10, No. 3, 2007, 494-518.
- Martin, P. and Rogers, C.A., “Optimal Stabilization Policy, in the Presence of Learning by Doing”, Discussion Paper No. 1129, CEPR, London, 1995.
- Oreopoulos, Philip, Till von Wachter, and Andrew Heisz, “The short- and Long-Term Career Effects of Graduating in a Recess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 4, No. 1, 2012, 1-29.
- Oreopoulos, Phil, von Wachter, Till, and Andrew Heisz, “The Short- and Long-term Career Effects of Graduating in a Recess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 4, No. 1, 2012, 1-29
- Ramey, G. and Ramey, V.A., “Cross-country Evidence on the Link between Volatilit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5, No. 5, 1995, 1138-1159.
- Sakellaris, Plutarchos, and Antonio Spilimbergo, “Business Cycles and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nternational Evidence on higher education”,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Vol. 52, June 2000, 221-256
- Schady, N. R., “Do Macroeconomic Crises Always Slow Human Capital Accumulation?”,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8, No. 2, 2004, 131-154.

Social Welfare Policy Paradigm for the Lifetime Income and Employment Stability: Case of Canada

Young Jun Chun*

Abstract

We address the effect of economic state at high school graduation on long-term income and employment status, using NLSCY of Canada. We find the possibility that the recessions may reduce human capital investment of lower income classes. We also show that the low income and the unstable employment of recession cohorts is due to less post-secondary education, which allows lower accessibility to the occupations and the industries that offer higher wage and stable employment. In addition, we provide some evidence, supporting the policy implication that subsidy to savings plans for education is effective to induce the post-secondary education.

JEL Classification : H53, I26, J24, J31

Key Words : Economic Crisis, Income and Employment Stability,
Social Welfare Policies, Human Capital Investment

* Professor, Division of Economics and Finance, Hanyang University,
E-mail: yjchun@hanyang.ac.kr